

에이즈 노이로제

에이즈는 많은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알려져 있으며 그 이유는 다양하다. 에이즈책자를 임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며 미국의 사실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시키려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신적인 질환의 일종인 중증의 노이로제에 걸리기도 하다.

이들은 상담인이 설명할 때에는 납득하는 척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고 확신하고 심한 번뇌에 빠지면서 검사를 계속한다. 에이즈책자의 세세한 부분을 강조하고 배우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거나 심한 경우 가족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으며 어린 자녀와의 접촉을 거부한다.

에이즈노이로제에 걸린 사람과 관련될 수 있는 에이즈의 허와 실을 열거하고자 한다.

'윤락녀와 관계를 한 후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 혀에 흰 백태가 보이며 피로하다. 에이즈에 걸린 것이 아닌가?'

이러한 류의 질문이 실제적으로 가장 많다.

에이즈감염을 심하게 고민하면 감염되지 않아도 쉽게 피로해 질 수 있다. 에이즈기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진이 자주색의 흉칙한 카포시육종이다. 우리나라 HIV감염자의 약 70%는 이

성간의 성관계에 유래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카포시육종을 보이는 대부분의 환자는 동성애자 혹은 양성애자이다. 천여명의 우리나라 HIV감염자중 카포시육종을 보인 환자는 수건에 불과하다.

임상증세로 HIV감염여부를 안다는 것은 어떤

병의라도 불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HIV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HIV에 걸렸지만 검사가 부정확하거나 항체 미형성기에 해당하여 항체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므로 계속하여 검사하고 싶다. 선생님의 의견은?'

물론 여러 사람과 근래에 남성동성연애관계를 갖는 사람에게는 이튼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흔히 윤락가에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수회의 성관계를 가진 경우 실제적으로 감염가능성은 극히 낮다. 따라서 사내지 육개월 이후 까지 많아도 두서너번 검사하여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6개월 이후 계속하여 검사를 반복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계속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정신과에 의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A

신 영 오 / 강원대 의대 교수

